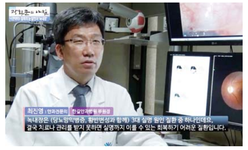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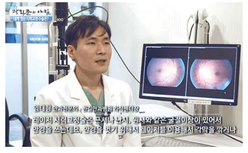
TV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침묵의 눈 살인자 '녹내장'



최진영 부원장 출연 / 2015.12.9.

내게 맞는 시력교정수술은?



임태형 라식센터장 출연 / 2016.1.5.

신문보도

조선일보
까끌까끌하다 했더니, 눈에 돌이?
이상언 진료부장 결막결석 관련 도움말 게재
2015.12.16.

환자 몰리는 종합병원보다 전문병원 활용을
정규형 이사장(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칼럼
2015.12.30.

약시 진단 받은 아이,
조기에 안경 씌워야 弱視(사시) 막는다
이상언 진료부장 약시 관련 도움말 게재
2016.1.6.

한국경제
전문병원을 바로 알자
정규형 이사장(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기고
2015.12.18.

경인일보
나도 안경 벗고 싶어 '라식 & 라섹'
시력교정술 가이드
임태형 진료과장 시력교정수술 관련 도움말 게재
2015.11.17.

의협신문 및 스포츠동아 외 20여 개 매체
두 살배기 은지 오늘부터 '행복한 EYE'
2015.12.10.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의료봉사 참여

추위가 한풀 꺾인 지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한길안과병원 정규형 이사장과 직원들이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찾았습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주최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약 50여 명의 당뇨환자들이 무료로 망막 진료를 받고, 눈 건강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정은 간호사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사람 내음을 듬뿍 느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친절 직원 게시판 & 고객의 소리함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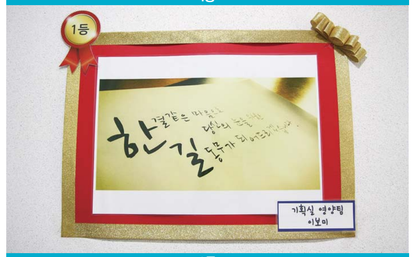
우리 병원에 친절 직원 게시판과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했습니다.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다양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기억에 남는 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마디 칭찬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길안과병원에 전하고 싶은 말, 바람이 있다면 즉시 의견을 작성하여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식지 발행 후 한 달 동안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을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아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호 소식지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30년 사사社史 작품 경진대회

2015년은 한길안과병원의 개원 30주년이었습니다. 한길의 서른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원들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동안 한길안과병원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소회, 동료와의 화합을 주제로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상식은 2015년 송년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병원 10층 한길홀 복도에서 아담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등



2등

3등

365일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WWW.HANGILEY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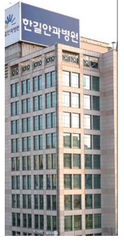
진료 안내

대표전화	_ 1577-7117
기타안내	_ 032) 503-3322
라식센터	_ 032) 529-1001
평 일	_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 요 일	_ 오전 9시 ~ 오후 3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한길안과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위한 원스톱 토털케어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 5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동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
안과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실력파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23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
22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 멀리 해외에까지 입소문 난 병원 "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_ 연간 외국인 진료건수 : 2,139건(2014년)

한길안과병원 HanGil Medical Foundation
2016 VOL. 52 JAN/FEB
2016년 (통권52호)
발행인 · 정규형 / 편집인 · 손준홍 / 발행 · 기획실 / 등록번호 · 인천바01043 / 디자인 · (주)꽃을담다(02.325.964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 한길안과병원 Tel_032.503.3322 Fax_032.503.0801

눈사랑 한길 News Letter

한길안과병원
스마트폰으로 한길안과병원을 만나세요.

한길안과병원은 정부의 까다로운 2번의 검증을 2번 다 통과한 명품 안과전문병원입니다

2015.01.01 - 2017.12.31 안과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FOR OPHTHALMOLOGY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PATIENT SAFETY 인증 의료기관 2015.4.3.~2018.4.2. HEALTHCARE QUALITY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의료기관 인증'이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의료의 질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엄격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두 살배기 은지, 행복한 EYE 되다

지난 2015년 12월 9일, 한길안과병원 김철우 교육수련부장이 두 살배기 은지(가명)의 사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은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으로 몰린 선천 내사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우선 안경과 가림법으로 교정하다가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지의 수술은 우리 병원과 SK와이번스가 함께 진행한 '행복한 EYE' 캠페인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올해 KBO 정규시즌 동안 SK와이번스의 이재원 선수가 친 안타 개수마다 우리 병원이 10만 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시즌을 마친 뒤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과 수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재원 선수가 138개의 안타를 기록하여 적립한 1,380만 원에 이재원 선수가 138만 원을 보태 총 1,51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오후 2시, 우리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마친 은지를 만나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병을 마친 이재원 선수는 "제 아구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은지 엄마는 "저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팠는데, 수술이 잘 되어 기쁘다"며 한길안과병원 의료진과 이재원 선수를 비롯한 SK와이번스 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의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손준홍 병원장은 "은지를 후원하고 남은 캠페인 기금 역시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수술이나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꾸준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SK와이번스 이재원 선수

수술 후 은지는…?

김철우 교육수련부장은 "은지의 수술 결과가 매우 양호하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사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효과적이다"며 "엄마 역시 주변에서 아이가 많이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만족스러워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 분야
사시, 소아안과, 백내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前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안과 전문의
- 한국 사시소아안과연구회 정회원
- 現 교육수련부장

수술을 집도한 **김철우 교육수련부장**은 소아안과 진료 경력 10년 이상, 소아 사시 수술 1,486건(2006~2015년)에 달하는 베테랑으로 한길안과병원의 '어린이 눈 건강 지킴이'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규형 이사장이 전하는 신년사

병신년(丙申年) 새해입니다.
재주와 지혜가 많은 원숭이해인 만큼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 뿌리 내리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병원은 매출이 230억 원을 넘고, 2주기 의료기관 인증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첫 번째로 통과했고, 1·2주기 연속으로 안과전문병원에 지정되는 등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월호 파장과 메르스 사태로 1년 내내 나라가 어수선하고 저성장시대, 저수가제도의 악조건 속에서 이룩한 성과여서 의미가 큽니다.
의료진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직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5년째 2%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체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시적 불황이 아닌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 위치한 부평의 지역경제 상황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개발지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구도심인 부평도 이미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파로 붐볐던 동인천과 주안이 오래전에 쇠락했듯이, 부평도 점점 변두리 부도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병원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원 30년이 넘은 우리 병원이 안고 있는 내부 문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병원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사 적체, 장기근속과 노령화에 따른 매너리즘 조짐,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병원의 확장성 한계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성장은커녕 도태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역사의 갈림길에서 변화를 거부한 국가나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백50여 년 전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랬고, 수년 전에는 세계적인 기업 노키아와 코닥이 변화를 외면하다 몰락했습니다. 두 기업은 휴대폰과 필름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지만,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의 출현에 힘 한번 못쓰고 주저앉았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런 상황이니 작은 기업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금 진료실적과 규모에서 국내 2위의 안과전문병원입니다. 병원장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순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후 우리의 모습은 불확실합니다. 목표는 국내 1위를 내걸었지만, 2위 자리 보존도 쉽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은 위기를 부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국내 2위 항구가 있는데다 기업체가 많아서 역동성이 큰 도시입니다. 부산과 대구의 인구는 정체된 반면 인천은 꾸준히 늘어서 3백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13개 국제기구와 IBM, 삼성바이오에피스, 포스코건설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맞춰 우리 병원도 미래 우리 일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작전동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 교육협력병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 병원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는 직원들의 생각을 반영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먹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면 나는 결국 도태되고 마는 게 엄혹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회만 되면 강조하는 당부입니다만 고객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질되는 병원과 망하는 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진은 물론이고 진료지원, 행정, 주차, 경비, 미화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고객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길 임직원 모두와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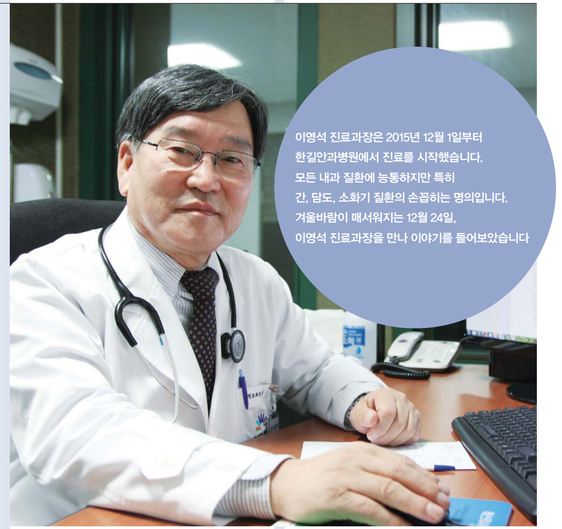
2016년 시무식

1월 4일,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전 임직원이 병원 10층 한길홀에 모여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정규형 이사장 신년사, 손준홍 병원장 격려사, 승진자 사령장 수여, 팀장 임명장 수여,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임직원들은 새해 목표를 공유하고 더욱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온 직원이 서로 악수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Interview

한길안과병원의 새로운 내과 명의를 소개합니다!

내과 전문의 **이영석 진료과장**



【 프로필 】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의학박사
- 前 가톨릭대학교 소화기내과 학과장
- 現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前 대한간학회 이사장
- 前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 現 대한간학회 자문위원/한국간연구재단 상임이사
- 2012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2014 대통령 표창

Q1. 환영합니다. 한길안과병원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여행해 보겠다는 다소 낭만적인 계획으로 제주도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다가오던 시점에 한길안과병원에서 내과 과장 제안이 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서울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로 복귀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차에 정규형 이사장님의 권유로 한길안과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Q2. 어떤 계기로 내과 의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학창시절부터 내과와 소아과에 관심이 많았으나 졸업 후에는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학창시절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 미국 의사면허 자격)와 영어 부문을 모두 합격하여 군대를 마치면 미국에 건너갈 계획이었으나 미국에서의 문호가 좁아졌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가톨릭의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전공과목으로는 소아과와 내과를 고민하다가 결국 내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의학의 전 분야에 있어서 내과는 가장 기본적인 학과이면서도 학문의 범위가 넓고, 또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깊이 있는 학과라는 점에 이끌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3. 내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임상의사들은 필연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게 됩니다.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보다가 환자의 상태가 기대치보다 더 빨리 호전될 때 느끼는 보람은 뿌듯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해하고 고마워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4.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항상 환자에 대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의 바탕에는 실력과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료를 할 때 비로소 친절함이 우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환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결과나 진단내용을 환자나 보호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특히 추운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내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특히 추운 겨울에 발병되는 질환 또는 악화되는 질환으로는 독감이나 폐렴, 뇌졸중, 통풍,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질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 이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말초혈관의 협류장애가 있는 사람, 고령자, 만성 신부전증, 간기능부전증,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도 장시간 추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6. 내과를 찾는 환자분들께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 병원의 내과를 찾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과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내과 질환보다는 안과 질환을 일으키는 또는 악화시키는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내과 질환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간과하기 쉽습니다. 질병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효과도 좋고 합병증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목표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치료 목표를 정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치료 목표를 유연성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의 수치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길안과병원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병원으로서 어려운 의료기관 인증을 두 번씩이나 통과한 유일한 전문병원입니다. 인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진료의 quality와 환자의 안전을 국가기관이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인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경영진과 의료진의 확고한 의지대로 병원 내 모든 부서가 일치단결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인증의 참 뜻이나 중요성,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한길안과병원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길 Academy〉를 활성화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계몽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본인도 이러한 역할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년회

우리 병원은 12월 4일, 카리스호텔에서 한길안과병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송년회는 정규형 이사장 개회사, 손준홍 병원장 격려사, 최면 장자인 이영석 내과 과장 건배사, 30주년 사사 작품 경진대회 시상, 장기자랑,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규형 이사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다. 환자 분들도 이러한 노력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찾아주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2016년에도 변함없이 병원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여러분이 있기에 든든하다"며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마음껏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격려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열띠게 호응한 시간은 장기자랑이었습니다. 미리 참여 의사를 밝힌 6팀과 더불어 즉흥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송년의 밤을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1등을 차지한 간호부 신입직원 양은아 사원은 "일주일 넘게 연습한 결과가 좋아서 기쁘다. 처음 연습할 때는 잘할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있어졌다.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은 흥겨운 송년의 밤을 보내며 새로운 해에도 한결같이 고객의 눈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환자 감동 실현을 위하여!

제4회 QI 경진대회

지난 12월 17일 우리 병원 10층 한길홀에서 '제4회 한길안과병원 QI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QI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실시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총 10부서가 참여했으며 고객 대기 시간 단축, 손 씻기, 각 부서별 비치의약품의 적정 관리, 심사 매뉴얼 작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심사, 수술, 영양팀 3부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상언 QI실장(진료부장 겸직)은 "환자와 직원들을 위해 각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특히 심사팀이 업무를 매뉴얼화(化)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 감동스러웠다. 다른 부서들도 적극 협조하여 설명서 작업에 참여한다면, 의료 질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진영 부원장은 "준비하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발표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가 열정적이어서 감명 깊었다. 덕분에 2016년에도 환자 안전과 직원 안전 개선, 질 관리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병원 임직원들은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QI 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4회 한길안과병원 QI 경진대회 수상팀 및 주제
- **대상 :** 심사팀(표준지침서 개발 및 적용)
- **최우수상 :** 수술팀(수술 중 오염 발생으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
- **우수상 :** 기획실 영양팀(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장 손위생 실천)